엔비디아 실적 후폭풍, 국채금리 하락에도 기술주 약세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 yunjeong.kim@ls-sec.co.kr

다시금 재현된 섹터 로테이션, 채권금리 하락

- 미 증시는 DOW +0.03% S&P500 -0.54% NASDAQ -1.18% 혼조. 엔비디아 후폭풍 영향에 기술주 약세, 반면 금융주, 산업재 강세로 가치주로의 섹터 로테이션 양상 재현
- 국채금리는 이란 핵협상, 러-우협상 주시하며 하락 10Y 4.012%(-0.91%). 프레디맥은 미 30 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3 년 5 개월만에 5%대(5.98%) 진입했다는 발표
-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21.2 만건, 전주 대비 소폭 증가, 다만 컨센보다 하회

엔비디아 호실적에도 반전시키지 못한 AI 우려

- 전거래일 마감후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 서프라이즈에도 불구, 어닝콜의 내용이 투자자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엔비디아 필두로 반도체 및 기술주 약세
- 젠슨 황 CEO 는 여전히 AI 산업에 낙관적이었으나, 구체적 수치 언급 부재. 이는 '검증'을 요구하는 최근의 분위기 하에서 리스크로 인식. 오픈 AI 인수문제 불확실성도 우려요인으로 작용
- WSJ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, 오라클, 팔란티어에 대한 공매도와 더불어 하이퍼스케일러의 부채 급증에 베팅하는 수요 증가. 반면, BofA 등 글로벌 IB 들은 일제히 엔비디아 목표가 상향
- 한편, 세일즈포스 호실적 등으로 AI S/W 는 3 거래일째 회복. IGV(S/W ETF) +2.1%

이란 핵협상과 러-우 중재, 중간선거 전 종전 원하는 트럼프

- 미국과 협상에 앞서 이란은 미국 에너지산업(석유·가스)에 대한 투자를 제안할 계획을 밝히며 협상 기대감 조성
- 협상 후, 이란 측은 진지하고 실질적인 제안이 오갔고 건설적이었다 밝혔으나, 여전히 미국 측이 요구한 농축제로 등 핵심안에 대한 합의는 부재. 다만, 긴장국면 전개보다 추가협상 의지. 다음주 빈에서 4 차 협상 예정
- 한편, 제네바에서 러-우 전쟁 종전 및 재건을 위한 우크라이나와 회담 진행(26-27). 중간선거 앞두고 6 월 종전 목표로 다음달 미-러-우 3 자 정상급 회담 추진 등 논의중. 한편, 미 백악관은 북한에도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 표명

특징주: 엔비디아 뉴스에 팔아라?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NVDA	엔비디아	-5.5%	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, AI 사이클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에 주가 하락. 글로벌 IB들은 TP 일제히 상향. JP모건은 투자의견 Overweight 유지, TP $265로 상향
CRM	세일즈포스	+4.0%	컨센 부합 수준의 '27년 매출 가이던스 제시에 전일 시간 외 주가 하락하기도 했으나, AI가 기존 S.W를 대체할 것이란 우려 불식시키며 정규장에서 반등
INTU	인튜이트	+3.5%	장 마감 후 2Q26 실적 발표에서 컨센 하회하는 3분기 가이던스 발표. 시간 외 주가 하락 중. 한편 CEO는 AI 대체 위협은 제한적이라 강조
DELL	델	-1.6%	장 마감 후 4Q26 실적 발표. AI서버 매출 전망이 컨센 상회하며 시간외 주가 급등. 최근 5개 분기 중 4개 분기에서 EPS 컨센을 상회하며 이익 창출 역량 입증
IONQ	아이온큐	+21.7%	4Q25 실적 발표에서 컨센 상회한 매출과 적자 폭 감소에 주가 강세